

『論語』 引用詩의 詩教論的 理解

— 孔子의 學問觀과 文質論을 중심으로 —

陳禮淑*

<目次>

I. 緒論	III. 孔子의 文質論과 詩 引用
II. 孔子의 學問觀과 詩 引用	IV. 結論

<국문 초록>

『論語』의 引用詩는 총 8편이다. 이중 孔子가 직접 引用한 詩가 4편이며, 弟子들이 孔子와의 대화 도중 인용한 것이 2편으로, 모두 孔子의 詩를 통한 제자 교육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나머지 2편의 引用詩는 曾子가 臨終할 때 引用한 시와 隱者의 引用詩이다.

本稿는 『論語』에 引用된 『詩經』의 詩와 逸詩를 考察하고 詩 引用의 상황과 대화 내용을 통해 그 속에 내포된 孔子의 詩教論의 특징을 이해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探究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서술되었다.

그런데 8편의 引用詩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기에는, 그 引用의 이유와 성격, 詩教의 내용이 제각기 달라서 너무 방대할 뿐 아니라 錯簡의 疑感이 유력하게 제기된 詩篇도 일부 있어서, 孔子의 學問觀과 文質論을 내포하고 있는 3편의 引用詩에 한정하여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먼저 孔子의 學問觀과 詩 引用에서는, 학문의 진보와 인격의 성장이란 측면에서 子路와 子貢의 학문적 성취를 인정해주면서도 자신의 성취에 만족하거나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 즉 지속적인 인간 성장을 중시하는 孔子의 詩教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다음으로 孔子의 文質論과 詩 引用에서는, 繪事後素에 이어 忠信과 禮의

* 공주대학교 한문교육과 겸임교수 / jinyesuk@naver.com

先後論을 인정하는 등 그 본質적인 면을 강조함으로써 文質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을 정립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文質彬彬의 이상적인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論語』에서는 詩 引用의 상황과 제자들의 학문적 성취 단계에 따라 孔子의 詩敎가 자연스럽게 전개되고 있다. 學問의 進步에 있어 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실천을 통해 제자들이 바람직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것이 孔子 詩敎의 특징이자 목적이며, 이 때문에 孔子가 제자들의 교육에 詩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어】 詩 引用, 學問觀, 詩敎, 文質論, 繪事後素, 忠信, 文質彬彬

I. 緒論

儒家의 대표적인 經典이라고 할 수 있는 『論語』는, 孔子의 言行 및 弟子들과의 問答 內容을 주로 기록하고 있는 중국 최초의 語錄이며, 孔子의 가르침을 전하는 가장 확실한 옛 文獻으로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 여기에는 人道가 구현된 正道의 시대를 창출하여 春秋時代의 혼란을 바로잡으려했던 孔子의 고뇌가 깊이 투영되어 있으며,¹⁾ 동시에 다양한 분야에 걸쳐 그의 핵심적인 思想들이 내포되어 있다.

孔子는 기존의 문화와 진리에 대한 전통을 신뢰하고 계승하여 그 속에서 본질적인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고 이를 새로운 문화 창조의 기반으로 삼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古代부터 계승되어 내려온 문화적 성과들 가운데 정치·교육·역사·문화 등 각 분야별로 經典을 정리하였는데 바로 儒家의 經典인 五經이었다. 五經은 孔子의 제자 교육용 교재이면서도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이상적인 治世를 현실에 구현하려는 공자의 노력과 열정의 집합체이기도 했다.

1) 『論語』, 「微子」6장, “夫子憮然曰 鳥獸, 不可與同群, 吾非斯人之徒與, 而誰與. 天下有道, 丘不與易也.” 참조.

孔子는 그중에서도 詩를 매우 중시하여 평소에도 자주 언급하였을 뿐 아니라 性情의 陶冶와 정치 소양의 함양에 가장 적합한 교재로 여겼다. 『論語』에 “孔子께서 평소에 늘 말씀하신 것은 詩와 書 및 禮를 행하는 일이었다.”²⁾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그는 詩를 가까이 하고 弟子들에게 그 중요성을 누차 강조하였다.

아들 伯魚에게는 “너는 周南과 召南을 배웠느냐? 사람으로서 周南과 召南을 배우지 않으면 담장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서 있는 것과 같다.”³⁾라 하여, 學問을 하는 데 있어서도 詩가 중요함을 말하고 있으며, 제자들에게도 “詩를 통해서 순수한 감정을 일으키고, 예로써 자신의 주체를 확립하며, 음악을 통해서 자신의 인격을 완성한다.”⁴⁾라 교육하여 詩가 인간의 성장과 변화, 완성에 기여함을 알려주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孔子는 시의 효용성에 대해 개인적 측면으로는 中正和平한 정감의 표현과 溫柔敦厚한 인격 수양을 들었으며,⁵⁾ 사회적인 측면으로는 현실을 반영하고 풍속을 쇄신하는 정치 교화의 교본으로서 그 가치를 중시하였다.⁶⁾ 또한 시와 음악의 조화를 통해 개인의 인격완성과 사회교육에 도움을 주며,⁷⁾ 외교적으로도 평화적인 善隣關係와 상호 우호적인 교류를 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⁸⁾ 이처럼 詩教는 性情論과 政治教化論의 측면으로 크게 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으니, 넓은 의미로 볼 때 教育과 政治를 하나의 범주 안에 넣어 백성들의 性情을 教化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論語』, 「述而」17장, “子所雅言, 詩書執禮.”

3) 『論語』, 「陽貨」10장, “子謂伯魚曰 女爲周南召南矣乎. 人而不爲周南召南, 其猶正牆面而立也與.”

4) 『論語』, 「泰伯」8장, “子曰, 興於詩, 立於禮, 成於樂.”

5) 『禮記』, 「經解」, “溫柔敦厚, 詩教也.” 참조.

6) 『論語』, 「陽貨」9장, “小子. 何莫學夫詩. 詩可以興, 可以觀, 可以群, 可以怨, 邇之事父, 遠之事君, 多識於鳥獸草木之名.” 참조.

7) 『論語』, 「泰伯」8장, “興於詩, 立於禮, 成於樂.” 참조.

8) 『論語』, 「子路」5장, “誦詩三百, 授之以政, 不達, 使於四方, 不能專對, 雖多, 亦奚以哉.” 참조.

『論語』에는 孔子의 詩에 대한 意識을 알 수 있는 단편적인 기록 뿐 아니라 직접적인 詩 引用을 통해 제자를 가르치고 바람직한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보인다. 이로 미루어 볼 때 孔子가 제자 교육에 있어 바른 性情의 陶冶와 학문의 成長에 초점을 맞추어 詩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詩經』과 『論語』의 詩教論的 특징이 구별된다는 것에 주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論語』의 引用詩는 총 8편이다. 이중 孔子가 직접 引用한 詩가 4편이며, 弟子들이 孔子와의 대화 도중 인용한 것이 2편으로, 모두 孔子의 詩를 통한 제자 교육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나머지 2편의 引用詩는 曾子가 臨終할 때 引用한 시와 隱者의 引用詩이다.

本稿는 『論語』에 引用된 『詩經』의 詩와 逸詩를 考察하고 詩 引用의 상황과 대화 내용을 통해 그 속에 내포된 孔子의 詩教論的 특징을 이해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探究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서술되었다. 그런데 8편의 引用詩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기에는, 그 인용의 이유와 성격, 詩教의 내용이 제각기 달라서 너무 방대할 뿐 아니라, 錯簡의 疑惑이 유력하게 제기된 詩篇도 일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孔子의 學問觀과 文質論을 내포하고 있는 3편의 引用詩에 한정하여 논지를 전개하고, 나머지 5편의 引用詩에 대해서는 차후 별도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詩經學과 引用詩에 대한 연구는 제각기 독자적이면서도 상호 긴밀한 관계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詩經論 및 詩經學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있으며,⁹⁾ 『論語』의 引用詩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

9) 우리나라의 詩經論 및 詩經學에 대한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論文이 있다.

金興奎, 「朝鮮後期の 詩經論과 詩意識」,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2.

朴茂瑛, 「白湖 尹鑄의 詩經論 研究」, 『한국한문학회연구』 제9·10합집, 한국한문학회연구회, 1987.

沈慶昊, 「朝鮮 詩經學에 관한 小考」, 『中語中文學』 제9집, 한국중어중문학회, 1987.

沈慶昊, 「茶山の 國風論」, 『韓國學報』 14, 일지사, 1988.

李炳燦, 「韓國의 詩經論 研究」, 단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되고 있다.¹⁰⁾ 그런데 이들은 孔子의 전인교육 및 인성교육과 맞물려 『論語』의 引用詩를 연구하거나 修辭學的 觀點에서 引用詩를 분석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으로, 經學의 觀點에서 『論語』 引用詩의 詩教論的 의미를 분석하고 그 논리체계를 고찰하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論語』에 引用된 詩를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經學의 觀點에서 詩教論的인 理解를 시도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任侑旻, 「徐命膺의 文學觀 및 詩經論」, 『한국한문학회연구』 제9·10합집, 한국한문학회, 1987.

陳禮淑, 「陽村 權近의 『詩淺見錄』 研究」, 공주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陳禮淑, 「孔子의 詩經觀과 그 後代의 反響 : 특히 주자와 그 後學들을 중심으로」, 『漢文學論集』 제39집, 權域漢文學會, 2014.

崔錫起, 「星湖 李瀼의 詩經學」,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이밖에 다음과 같은 연구논문도 詩經論 및 詩經學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권정안, 「詩經 周南의 儒學的 理解, <關雎>, <葛覃>, <卷耳>의 修身論을 중심으로」, 『儒敎思想文化研究』 제54집, 韓國儒敎學會, 2013.

李康範, 「漢代 今古文 詩經學 研究」,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李再薰, 「朱子 詩經學 研究」,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10) 『論語』의 引用詩에 관한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論文이 있다.

남상호, 「공자의 시적 인성교육」, 『인문과학연구』 제44집,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朴仁和, 「四書에 引用된 詩經詩 研究」, 公州師範大學校 教育大學院 석사학위논문, 1989.

安性栽, 「『論語』의 引詩 分析을 통한 中國 古代 修辭學 試探」, 『中國學』 제55집, 2016.

안희진, 「공자의 『시경』 인용을 논함」, 『中國學』 제55집, 대한중국학회, 2016.

윤인현, 「『論語』에서의 『詩經』 詩」, 『국제어문』 제60집, 국제어문학회, 2014.

이영환, 「『논어』의 시교육론」, 『韓國教育史學』 제34권 제3호, 韓國教育史學會, 2012.

이영환, 「『논어』에 수용된 『시경』 시의 교육적 해석」, 『韓國教育史學』 제35권 제4호, 韓國教育史學會, 2013.

이채문, 「<論語>에 引用된 <詩經> 詩」, 『論文集』1, 光州女子大學校, 1998.

임현규, 「공자의 『시경』 재구성과 詩論 : 『논어』를 중심으로」, 『哲學研究 : 대한철학회논문집』 제137집, 대한철학회, 2016.

임현규, 「『논어』의 시(詩)에 대한 주자의 해석과 다산의 비평」, 『한국철학논집』 제49집, 한국철학사연구회, 2016.

차민경, 「孔子의 人性教育思想 研究 : 四書에 인용된 『詩經』 詩를 中心으로」,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II. 孔子의 學問觀과 詩 引用

『論語』에 引用된 詩들은, 「衛風」의 <淇奥>, 周頌의 <雝>, 小雅의 <小旻>과 <我行其野>, 「邶風」의 <雄雉>와 <匏有苦葉>, 逸詩인 <巧笑倩兮>와 <唐棣之華> 등 총 8편이며, 이와 관련된 인물은 孔子를 비롯하여 그 제자인 子貢과 子路, 子夏, 子張, 曾子, 이밖에 隱者까지 합쳐서 모두 7명이다. 그런데 孔子가 弟子를 칭찬하기 위해 직접 詩를 引用한 경우는, 오직 「子罕」 26장 한 곳에서만 보인다.

해진 숨을 입고서 여우나 담비가죽으로 만든 갓옷을 입은 자와 같이 서 있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는 由(子路)일 것이다. 남을 해치지 않으며,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다면 어찌 착하지 않겠는가?¹¹⁾

이 詩는 『詩經』, 「邶風」, <雄雉> 4장의 詩句이다. 이 詩는 본래 婦人 이 외지로 부역 나간 남편을 그리워하고 걱정하는 詩이다.¹²⁾ 『毛序』에서는 衛나라 宣公을 풍자한 詩로 보고, “음란하여 국사를 생각하지 않고 군대를 자주 일으켜 大夫들이 오랫동안 부역하여 남녀가 원망하고 흠아비로 있으니, 國人들이 이를 걱정하여 이 詩를 지은 것”이라고 하였다.¹³⁾

<雄雉> 4장의 原文은 다음과 같다.

百爾君子	모든 군자들이
不知德行	덕행을 모르실까.
不忮不求	해치지 않고 탐하지 않는다면
何用不臧	어찌 착하지 않으리오.

11) 『論語』, 「子罕」 26장, “子曰, 衣敝緼袍, 與衣狐貉者, 立而不恥者, 其由也與.”

12) 朱熹, 『詩集傳』, 「邶風」, <雄雉>, “婦人以其君子從役于外.” 참조.

13) 『毛序』, 「邶風」, <雄雉>, “雄雉, 刺衛宣公也. 淫亂, 不恤國事, 軍旅數起, 大夫久役, 男女怨曠, 國人患之, 而作是詩.” 참조.

이 詩의 原義는 “모든 군자들이 어찌 德行을 알지 못하겠는가? 만일 남을 해치지도 않고 탐하지도 않는다면 무엇을 한들 善하지 않겠는가?” 라는 뜻으로, 남편이 遠行에 患難을 범할까 근심하면서 매사에 잘 대처하여 온전하기를 바라는 부인의 심정을 드러낸 것이었다.¹⁴⁾

그런데 孔子는 이 詩의 마지막 구절만을 斷章取義하여 外物에 구애되거나 흔들리지 않는 子路의 마음자세를 칭찬하는 데 활용함으로써 ‘바람’을 담은 原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결과’를 칭찬하는 구절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는 貧富에 마음이 동요되지 않아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富者에 대해서도 질투하거나 선망하지 않는 경지, 즉 外物에 얽매이지 않는 경지에 오른 子路의 학문적 성취를 인정한 것이었다.

그 뒤에 子路가 終身토록 이 구절을 외우려 하자,¹⁵⁾ 孔子는 子路가 학문에도 단계적 성장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여기에 만족하여 안주하고 더 이상 학문에 정진하지 않을까 염려하였다. 그리하여 “이 방법이 어찌 善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¹⁶⁾라는 말로 終身토록 이 구절을 외우려 하는 子路를 억누르고 더 높은 경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었다.¹⁷⁾

이에 대해 潛室陳氏는 子路가 世間에서 추구하는 가치인 名利의 큰 關門을 분명하게 넘어서는 경지에 이미 들어섰다고 보았다. 다만 그 工

14) 朱熹, 『詩集傳』, 「邶風」, <雄雉>, “言凡爾君子, 豈不知德行乎, 若能不恃害, 又不貪求, 則何所爲而不善哉, 憂其遠行之犯患, 冀其善處而得全也.” 참조.

15) 孔子의 68대손이자 청나라의 유학자인 孔廣森(1752~1786)은 『經學危言』에서 子路가 종신토록 항상 ‘不恃不求’ 두 마디를 외운 것은 南容이 ‘白圭之玷’이란 詩를 하루에 세 번 반복했던 것과 같은 일로 파악하고 있다(劉寶楠, 『論語正義』, 「子罕」26장, “孔氏廣森經學危言, 子路終身常誦, 不恃不求二言, 猶南容一日三復白圭之玷.” 참조.).

16) 『論語』, 「子罕」26장, “不恃不求, 何用不臧. 子路, 終身誦之, 子曰, 是道也, 何足以臧.”

17) 이 주석에 대해서는 異見이 있다. 『論語正義』에서는 “孔子가 이 詩에서 취할 만한 것이 적다고 여겨서 ‘不恃不求’가 혹 하나의 道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이러한 경지에만 머무른다면 또한 어찌 죽히 선하다고 하겠는가?”라고 한 것으로 풀이한다(劉寶楠, 『論語正義』, 「子罕」26장, “子以其取於詩者小. 故語之曰, 不恃不求, 是或一道也, 然止于是而已, 則亦何足以臧哉.” 참조.).

夫가 거칠고 성글어 아직 聖賢의 문지방과 거실에 들어서지 못하였기 때문에, 孔子는 子路의 이미 능한 바를 누르고 아직 능하지 못한 것을 나아가게 하고자 한 것으로 파악했다.¹⁸⁾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본다면 孔子는 평소 弟子들을 교육할 때 그 당시의 상황이나 弟子의 개인적 성향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詩를 引用하면서 弟子들에게 詩 引用의 모범을 보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義理는 無窮하기 때문에 학문적 성취에 있어서도 자기 성장의 不斷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을 詩敎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論語正義』에서는 “비유하자면 ‘부유한 사람이 교만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이 아첨하지 않는 것’과 같은 단계는, 아직 ‘부유하면서도 禮를 좋아하고 가난하면서도 道를 즐거워하는 것’만 못한 것이다. 이 기기를 좋아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며 원망하고 탐욕스러운 짓을 하지 않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仁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 이는 모두 죽히 썩이 될 수 없는 것이다.”라 하여,¹⁹⁾ 이 구절을 「學而」의 子貢의 질문과 연관시켜 설명하고 있다.

子貢이 말하였다. “가난하되 아첨함이 없으며, 부유하되 교만함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괜찮으나, 가난하면서도 즐거워하며, 부유하면서도 禮를 좋아하는 것만은 못하다.” 하셨다. 子貢이 말하였다. “『詩經』에 ‘切斷해 놓은 듯하며, 다시 그것을 간 듯하며, 쪼아놓은 듯하며, 다시 그것을 간 듯하다.’ 하였으니, 이것을 말함일 것입니다.”²⁰⁾

子貢이 引用한 詩는 『詩經』, 「衛風」, <淇奥>의 詩句인데, 그 原文은 다음과 같다.

-
- 18) 『論語』, 「子罕」26장, 潛室陳氏 小註, “子路於世間名利關, 大界限分明處, 已見得破. 但其工夫粗疏, 未入聖賢闢室, 所以聖人常欲抑其所已能, 進其所未能.” 참조.
- 19) 劉寶楠, 『論語正義』, 「子罕」26장, “譬若富者無驕, 貧者無詔, 尙未若富好禮, 貧樂道也. 克伐怨慾, 不行, 可以爲難, 尙未可以爲仁也, 是皆未足爲善也.”
- 20) 『論語』, 「學而」15장, “子貢曰, 貧而無詔, 富而無驕, 何如. 子曰, 可也, 未若貧而樂, 富而好禮者也. 子貢曰, 詩云如切如磋, 如琢如磨, 其斯之謂與.”

瞻彼淇奥	저 淇水 벼랑을 보니
萋竹猗猗	푸른 대나무 猗猗하도다.
有斐君子	문채 나는 군자여!
如切如磋	잘라놓은 듯 다듬어 놓은 듯
如琢如磨	쪼아놓은 듯 갈아놓은 듯하도다.
瑟兮僴兮	치밀하고 굳세며
赫兮喧兮	빛나고 점잖으니
有斐君子	문채 나는 군자여!
終不可諠兮	끝내 잊을 수 없도다.

「詩序」에 의하면 이 詩는 衛나라 사람들이 지은 것으로, 武公이 내면의 덕이 드러나는 威儀와 文彩가 있는데다 신하들의 規諫을 잘 들어주어 禮로 스스로를 단속하였기 때문에 周나라 조정에 들어가 왕의 卿士가 되어 周王室을 도왔는데, 이를 讚美하여 지었다고 한다.²¹⁾

그런데 『論語』에서 子貢은, 孔子와의 대화 과정에서 깨달은 학문의 진보와 인격의 성장에 있어 거칠고 정밀한 정도를 표현하기 위해 ‘如切如磋, 如琢如磨’ 두 구절만을 斷章取義하였다. 이 詩句의 原義는, 衛武公의 學問이 더욱 발전하는 것을 ‘如切如磋’로, 人格이 성장하는 것을 ‘如琢如磨’로 각기 비유한 것이었는데,²²⁾ 子貢은 原義와 달리 이를 다시 네 단계로 세밀하게 나누어 분석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子貢이 스스로 성취한 ‘가난하되 아첨함이 없으며, 부유하되 교만함이 없는 경지’에 대해 질문하자, 孔子는 ‘가난하면서도 즐거워하며, 부유하면서도 禮를 좋아하는 경지’만은 못하다고 가르쳐준다. 이에 義理의 無窮함과 함께 不斷한 精進으로 학문과 인격을 성장시켜야 함을 깨달은 子貢은, 詩를 引用하여 자신이 깨달은 것을 切磋琢磨의 네 단계로 세분

21) 『詩小序』, 「衛風」, <淇奥>, “淇奥, 美武公之德也. 有文章, 又能聽其規諫, 以禮自防. 故能入相于周, 美而作是詩也.” 참조.

22) 朱熹, 『大學章句』3章, “如切如磋者, 道學也, 如琢如磨者, 自修也, 瑟兮僴兮者, 恂慄也, 赫兮喧兮者, 威儀也, 有斐君子終不可諠兮者, 道盛德至善, 民之不能忘也.” 참조.

화해서 밝혔던 것이다. 이에 孔子는 “賜는 비로소 더불어 詩를 말할 만 하구나. 지나간 것을 말해주자 올 것(말해주지 않은 것)을 아는구나.”라고 하여²³⁾ 子貢의 學問的 成就를 認定해주고 있다.

이 詩는 『大學』에서도 인용되고 있는데, 詩를 斷章取義하지 않고 한 장 전체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는 점과, 明明德하는 자의 止於至善을 밝힌 것으로 보아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것이²⁴⁾ 『論語』와 다른 점이라고 하겠다. 즉 『論語』에서는 최고의 덕을 갖춘 인물에 대한 칭송의 의미보다는 진일보하는 학문적 성취 단계를 표현하는 말로 새롭게 의미가 부여되었던 것이니, 이는 『論語』만이 가지고 있는 詩教論的 특징이었던 것이다.

이상으로 孔子가 인용한 <雄雉>와 子貢이 인용한 <淇澳>의 原義를 살펴보고 詩 인용의 상황과 意圖 등에 대해서 考察해보았다. 孔子가 인용한 <雄雉>의 詩句가 貧富에 마음이 동요되지 않아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富者에 대해서도 질투하거나 선망하지 않는 경지에 오른 子路를 칭찬하는 데 인용한 것이었다면, 子貢이 인용한 <淇澳>은 貧富에 구애받지 않는 것보다 한 단계 높은 ‘貧而樂, 富而好禮’의 경지를 알게 된 깨달음을 표현한 引用詩였던 것이다.

결국 이 두 편의 詩 引用에는 학문의 진보와 인격의 성장이란 측면에서 子路和 子貢의 학문적 성취를 인정해주면서도 자신의 성취에 만족하거나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 즉 지속적인 인간 성장을 중시하는 孔子의 詩教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고 하겠다. 孔子는 子路에게 外物에 얽매이지 않는 경지보다 더 높은 경지가 있음을 일깨워주고 子貢에게는 ‘貧而樂, 富而好禮’의 높은 경지가 있음을 가르쳐주어 切磋琢磨의 깨달음을 이끌어내었다. 이와 같이 詩를 引用하여 제자들을 단계적 성장의 길로 인도해주는 것이 바로 孔子의 詩教라 할 수 있으니, 孔子와

23) 『論語』, 「學而」15장, “子曰, 賜也, 始可與言詩已矣. 告諸往而知來者.”

24) 진예숙, 『『大學』의 引用 詩 研究 : 集註와 小註를 중심으로』, 『한문고전연구』 제31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15, pp.264-266 참조.

子貢의 詩 引用의 저변에는 ‘貧而樂, 富而好禮’의 높은 경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弟子들을 이끌어주는 孔子의 詩教論的 教育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Ⅲ. 孔子의 文質論과 詩 引用

孔子의 門下에서는 詩를 引用하여 弟子들을 教育하거나 질문을 하면서 學問의 段階를 高揚시키는 일이 자연스럽게 전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例는 「八佾」에 기록된 子夏와 孔子의 問答에서도 보인다. 文學에 뛰어났던 子夏는, 子貢과 함께 孔子로부터 ‘可與言詩’²⁵⁾의 평을 들은 高弟였다. 『論語』, 「八佾」에 나오는 子夏와 孔子의 問答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子夏가 물었다. “예쁜 웃음에 보조개가 예쁘며, 아름다운 눈에 눈동자가 선 명함이어! 흰 비단으로 채색을 한다.’ 하였으니, 무엇을 말한 것입니까?”²⁶⁾

여기에서 子夏가 引用하고 있는 詩에 대해 먼저 살펴보면, 『詩經』, 「衛風」, <碩人>에서 斷章取義한 것이란 說과 逸詩라는 說로 나누어진다. 東漢의 經學家인 馬融은 ‘위의 두 구절은 『詩經』, 「衛風」, <碩人> 2장의 것이고 아래의 한 구절은 逸失된 句’라고 주장한다.²⁷⁾ 이에 반해 朱子는 이 詩를 逸詩로 단정 짓고, 그 근거로 子夏가 引用한 이 逸詩가 매우 理致에 합당하기 때문에 刪去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들었다.²⁸⁾

25) 朱熹, 『論語集註』, 「八佾」8장, “謝氏曰, 子貢, 因論學而知詩, 子夏, 因論詩而知學. 故, 皆可與言詩.” 참조.

26) 『論語』, 「八佾」8장, “子夏, 問曰, 巧笑倩兮, 未目盼兮. 素以爲絢兮, 何謂也.”

27) 劉寶楠, 『論語正義』, 「八佾」8장, “馬曰, 倩, 笑貌, 盼, 動目貌, 絢, 文貌. 此上二句, 在衛風碩人之二章, 其下一句, 逸也.” 참조.

28) 黎靖德, 『朱子語類』, <巧笑倩兮章>, “且此一句最有理, 亦不應刪去.” 참조.

어떤 사람이 “(이 詩는) 곧 『詩經』, 『衛風』, <碩人>이니, ‘素以爲絢兮’란 한 구절은 夫子께서 刪去하신 것이다.”라 이르니, 朱子가 말하였다. “이 句節은 가장 의미가 깊어 夫子께서 바야흐로 취하셨거늘, 도리어 刪去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또한 <碩人> 4章은 章마다 모두 7句로 구성되어 있어, (3章인) 이 章과 呼應하지 않으니, 유독 한 句가 많다고 해서 刪去하셨겠는가? 반드시 한 편의 詩였으나 지금은 없어진 것으로 구별해야 한다.”²⁹⁾

子夏가 引用하고 있는 詩의 出處에 대한 견해는, 司馬遷의 孔子 刪詩說과 관련하여 詩經論의 중요한 爭點 중 하나인데, 朱子는 孔子 刪詩說을 비판하는 근거 중 하나로 이 逸詩를 들고 있는 것이다.³⁰⁾

그러나 朱子の 주장처럼 子夏가 질문한 引用詩의 핵심은 앞의 두 구절보다는 뒤의 ‘素以爲絢兮’에 있었다. 이 구절을 ‘흰 비단으로 채색을 한다.’는 뜻으로 생각한 子夏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어 孔子에게 질문을 한 것이었다. 이에 대한 孔子의 대답은 “그림 그리는 일은 흰 비단을 마련하는 것보다 뒤에 하는 것”³¹⁾이었다. 이에 대해 朱子는 이를 다음과 같이 풀이하여 繪事後素를 文質論과 연결시키고 있다.

繪事は 그림 그리는 일이다. 後素는 흰 비단을 마련하는 것보다 뒤에 하는 것이다. 『周禮』, 『考工記』에 ‘그림 그리는 일은 흰 비단을 마련한 뒤에 한다.’ 하였으니, 먼저 흰 비단으로 바탕을 삼은 뒤에 五色의 채색을 칠하는 것이니, 마치 사람이 아름다운 資質이 있는 뒤에야 文飾을 가할 수 있음과 같은 것이다.³²⁾

29) 『論語』, 「八佾」8장, 朱子 小註, “或謂卽衛風碩人, 所云素以爲絢兮一句, 夫子所刪也. 朱子曰, 此句, 最有意義, 夫子方有取焉, 而反見刪, 何哉. 且碩人四章, 章皆七句. 不應此章, 獨多一句而見刪. 必別自一詩而今逸矣.” 참조.

30) 司馬遷이 최초로 제기한 孔子 刪詩說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意見들이 대립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論文의 성격상 생략하기로 한다(陳禮淑, 『陽村 權近의 『詩淺見錄』 研究』,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pp.23-37에서 刪詩說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31) 『論語』, 「八佾」8장, “子曰, 繪事, 後素.”

32) 朱熹, 『論語集註』, 「八佾」8장, “繪事, 繪畫之事也. 後素, 後於素也. 考工記曰, 繪畫之事後素功, 謂先以粉地爲質而後施五采, 猶人有美質然後可加文飾.”

文質은 각기 外樣과 바탕, 修飾과 內容, 後天的인 것과 先天的인 것을 뜻하며, 서로 대립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는 말이 결합된 복합어이다. 이 말은 본래 孔子의 “바탕이 形式을 이기면 거칠고 素朴해지며, 形式이 바탕을 이기면 兪해진다. 文質이 잘 조화를 이룬 뒤에야 君子라고 할 수 있다.”³³⁾는 말씀에서 연유한 것으로, 孔子는 사람의 마음속에 내재해 있는 德性和 人品이 그 사람의 말투나 행동거지에 나타난다는 점을 들어 文質의 均衡과 相互作用을 重視하였다.

그러나 현실에서 文質이 均衡을 잃을 경우 文이 부족한 사회는 거친 문화가 팽배하기 때문에,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 차원 높고 품위 있는 인간관계의 설정을 위한 합의된 慣例인 禮를 필요로 하게 된다. 반대로 文이 지나친 사회는 내적인 힘, 道德性이 부족하기 때문에 알맹이가 없는 外的 形式化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禮가 文이라면 忠信은 質에 해당되는데, ‘文質彬彬’이 가장 理想的이지만 그 理想이 현실로 구현되지 못한 경우 무엇을 먼저 선택하고 均衡을 맞춰갈 것인가가 關鍵이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孔子는 禮의 근본을 묻은 林放에 대해서도 크게 칭찬하면서 다음과 같이 알려주고 있다.

林放이 禮의 근본을 묻자, 孔子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하다! 질문이여! 禮는 그 사치하기 보다는 차라리 검소하여야 하고, 喪은 형식적으로 잘 치르기 보다는 차라리 슬퍼하여야 한다.”³⁴⁾

이에 대해 朱子는 喪禮에 있어서 형식적인 節文만 익숙하고, 애통하고 서글퍼하는 실상이 없는 것과 애통함에 전일하고 文이 부족한 것이 모두 문제라고 풀이했다. 禮는 中庸을 얻는 것이 가장 적절한데, 사치를 부리거나 형식에 치우친 것과 검소하거나 지나치게 슬퍼하는 것 모두

33) 『論語』, 「雍也」8장, “質勝文則野, 文勝質則史, 文質彬彬, 然後君子.”

34) 『論語』, 「八佾」4장, “林放, 問禮之本, 子曰, 大哉, 問. 禮, 與其奢也, 寧儉, 喪與其易也, 寧戚.”

文質의 中庸을 벗어나 禮에 합하지 않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본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먼저 바탕인 質이 있는 뒤에야 비로소 形式인 文이 있는 것이 事理에 尙當하기 때문에 바탕인 質이 곧 禮의 근본이라고 보았다.³⁵⁾

같은 맥락에서 孔子는, 繪事後素라는 가르침에 깨달음을 얻은 子夏가 곧바로 “禮가 (忠信보다) 뒤이겠군요?” 하고 말하자, “나를 흥기시키는 자는 商(子夏)이로구나! 비로소 함께 詩를 말할 만하다.”³⁶⁾라고 기뻐하면서 子夏를 칭찬하고 있다. 孔子가 文質에 대한 觀點을 ‘繪事後素’로 표현한 것이었다면, 子夏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것을 禮와 忠信의 관계로 심도 있게 이해하였으니, 가치의 세계에 있어서도 바탕이 되는 根本과 외형으로 드러나는 形式이 있음을 알고 본질을 중시한 것이었다. 바로 이 점이 孔子의 숨은 意圖를 앞서 드러낸 子夏의 功이었기에 孔子가 크게 칭찬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茶山은 『禮記』, 「禮器」의 말을 引用하여 ‘忠信은 禮의 근본이며, 義理는 禮의 文飾이니, 根本이 없으면 禮가 성립되지 않고, 義理가 없으면 禮가 실행되지 않는다.’고 논증하고 있다.³⁷⁾

이처럼 子夏의 詩 引用에서 대두되는 忠信과 禮의 先後論은, 곧 孔子의 文質論과 一脈相通한다. 이는 後代의 文質論의 歷史觀으로 확대 해석되기도 하지만, 본래적 의미에서는 주로 인간의 본질과 형식적인 꾸밈새의 관계와 관련되어 있다. 孔子는 繼周者³⁸⁾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文勝質則史’의 경향으로 인해 초기의 強點을 유지하지 못하고 形式化

35) 朱熹, 『論語集註』, 「八佾」4장, “在喪禮, 則節文習熟而無哀痛慘怛之實者也. 戚, 則一於哀而文不足耳. 禮貴得中, 奢易則過於文, 儉戚則不及而質, 二者皆未合禮. 然, 凡物之理, 必先有質而後有文, 則質乃禮之本也.” 참조.

36) 『論語』, 「八佾」8장, “曰, 禮, 後乎. 子曰, 起予者, 商也. 始可與言詩已矣.”

37) 丁若鏞, 『論語古今註』, 「八佾」8장, “禮器曰, 先王之立禮也, 有本有文. 忠信, 禮之本也, 義理, 禮之文也. 無本, 不立, 無文, 不行.” 참조.

38) 『論語』, 「爲政」23장, “子張, 問, 十世, 可知也. 子曰, 殷因於夏禮, 所損益, 可知也, 周因於殷禮, 所損益, 可知也, 其或繼周者, 雖百世, 可知也.” 참조.

의 길로 떨어져버린 周禮의 文化에 한계를 느꼈으며, 이에 대한 해답을 끊임없이 추구했다.

그리하여 子夏의 물음에 繪事後素라 대답해주고 이어 忠信과 禮의 先後論을 인정하는 등 그 本質的인 면을 강조하였다. <巧笑倩兮>와 연관하여 子夏와 주고받은 문답을 통해 孔子는, 제자인 子夏가 禮의 근본인 忠信을 중시하고 그 선후 관계를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詩教로써 가르침을 주고 있다. 아울러 내용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있는 당시의 부정적인 文化를 止揚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文質彬彬의 理想的인 人間象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孔子를 元祖로 하는 儒學은,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자칫 형식에 치우치기 쉬운 禮보다 그 본질인 忠信을 더 중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文과 質이 조화를 이룬 이상적인 文化를 만들고, 文質彬彬의 人間으로 완성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IV. 結論

詩와 音樂은 人間의 마음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순수한 감정을 불러일으켜 人間의 成長과 발전적인 변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지대하다. 禮樂의 學習과 成就를 중시하는 儒學에서는 일찍부터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詩와 音樂을 整理하는 등 여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위에서 언급한 8편의 引用 詩 이외에도 詩에 대한 孔子의 斷片的인 評語는 『論語』의 도처에서 보인다.³⁹⁾

39) 詩와 관련하여 孔子는, “詩三百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생각에 邪惡함이 없다(『論語』, 「爲政」2장, “詩三百, 一言以蔽之曰, 思無邪.”)라 하였고, 二南의 詩 중 <關雎>에 주목하여 ‘<關雎>는 즐거워하되 淫亂하지 않고 슬퍼하되 마음을 상하지 않는다(『論語』, 「八佾」20장, “子曰, 關雎, 樂而不淫, 哀而不傷.”)라 評하면서 최고의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孔子는 평소 弟子들을 교육할 때 그 당시의 상황이나 弟子의 개인적 성향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詩를 引用하면서 弟子들에게 詩 引用의 모범을 보였다. 따라서 『論語』에 수록된 引用詩를 살펴보면, 孔子가 제자를 교육하는 데 있어 바람직한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제자들의 性向과 단계적인 학문의 성취 정도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중요한 端緒들이 들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먼저 孔子의 學問觀과 詩 引用에서는, 학문의 진보와 인격의 성장이란 측면에서 子路和 子貢의 학문적 성취를 인정해주면서도 자신의 성취에 만족하거나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 즉 지속적인 인간 성장을 중시하는 孔子의 詩敎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時代와 學風에 따라 해석에도 다양한 見解가 있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孔子는 <雄雉>를 인용하여 貧富와 같은 外物에 얽매이지 않는 경지를 칭찬해주었지만 子路가 여기에 안주할까 염려하여 이보다 높은 경지가 있음을 일깨워주었다. 또한 子貢에게는 ‘貧而無詔, 富而無驕’의 경지도 오르기 쉽지 않음을 인정해주면서도 이보다 더 높은 ‘貧而樂, 富而好禮’의 경지가 있음을 가르쳐주어 切磋琢磨의 깨달음을 이끌어내었다. 이와 같이 詩를 引用하여 제자들을 단계적 성장의 길로 인도해주는 것이 바로 孔子의 詩敎라 할 수 있으니, 孔子와 子貢의 詩 引用의 저변에는 ‘貧而樂, 富而好禮’의 높은 경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弟子들을 이끌어주는 孔子의 詩敎論的 교육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孔子의 文質論과 詩 引用에서는, 繪事後素에 이어 忠信과 禮의 先後論을 인정하는 등 그 本質的인 면을 강조함으로써 文質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을 정립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文質彬彬의 이상적인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孔子를 元祖로 하는 儒學은,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자칫 형식에 치우치기 쉬운 禮보다 그 본질인 忠信을 더 중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文과 質이 조화를 이룬 이상적인 文化를 만들고, 文質彬彬의 인간으로 완성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論語』에서는 詩 引用의 상황과 제자들의 학문적 성취 단계에 따라 孔子의 詩敎가 자연스럽게 전개되고 있다. 『論語』에 引用된 시와 그 저변의 상황들을 살펴볼 때 詩가 인격적 한계를 반성하고 돌파하는데 매우 유용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孔子는, 詩 引用을 통해 제자들이 스스로 感發하고 懲創하여 자기 내면에서 새롭게 학문과 인격의 진보로 나아가는 계기를 갖게 되기를 바랐고, 孔子와 함께 詩에 대해 談論을 했던 제자들은 그 기대에 걸맞은 깨달음과 진일보한 成長으로 보답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孔子의 詩敎는 자기 내면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感發과 자발적인 懲創을 통해 더 높은 인격의 진보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도록 자연스럽게 인도하는 측면이 강하다. 學問의 進步에 있어 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실천을 통해 제자들이 바람직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것이 孔子 詩敎의 특징이자 목적이며,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러한 인재들이 사회적 혼란을 바로잡고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기대가 그 기저를 이루고 있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孔子가 제자들의 교육에 詩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參考 文獻>

1. 基本資料

- 『大學』, 『論語』, 『孟子』, 『中庸』,
『詩經』, 『禮記』, 『周禮』, 『國語』,
孔穎達, 『毛詩正義』
司馬遷, 『史記』
黎靖德, 『朱子語類』
劉寶楠, 『論語正義』
李 瀾, 『論語疾書』
丁若鏞, 『論語古今註』
朱 熹, 『論語集註』
_____, 『詩集傳』
민족문화문고, 『四書大全』

2. 其他 參考資料

- 成百曉 譯註, 『論語集註』, 傳統文化研究會, 1990.
_____, 譯註, 『詩經集傳』, 傳統文化研究會, 1993.

3. 論文類

- 權正顏, 「詩經 周南의 儒學的 理解 : 〈關雎〉, 〈葛覃〉, 〈卷耳〉의 修身論을 중심으로」, 『儒教思想文化研究』 제54집, 韓國儒教學會, 2013.
김동인, 「논어의 문질론과 그 교육적 함의」, 『教育史學研究』 4, 서울대학교 教育史學會, 1992.
남상호, 「문질론을 중심으로 한 공자의 방법론에 관한 연구」, 『東洋哲學』 3, 韓國東洋哲學會, 1992.
_____, 「공자의 시적 인성교육」, 『인문과학연구』 제44집,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朴仁和, 「四書에 引用된 詩經詩 研究」, 公州師範大學校 教育大學院 석사학위논문, 1989.

- 安性栽, 「『論語』의 引詩 分析을 통한 中國 古代 修辭學 試探」, 『中國學』 제55집, 2016.
- 안희진, 「공자의 『시경』 인용을 논함」, 『中國學』 제55집, 대한중국학회, 2016.
- 윤인현, 「『論語』에서의 『詩經』 詩」, 『국제어문』 제60집, 국제어문학회, 2014.
- 李康範, 「漢代 今古文 詩經學 研究」,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 李炳燦, 「韓國의 詩經論 研究」, 단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 이영환, 「『논어』의 시교육론」, 『韓國教育史學』 제34권 제3호, 韓國教育史學會, 2012.
- _____, 「『논어』에 수용된 『시경』 시의 교육적 해석」, 『韓國教育史學』 제35권 제4호, 韓國教育史學會, 2013.
- 이채문, 「〈論語〉에 引用된 〈詩經〉 詩」, 『論文集』 1, 光州女子大學校, 1998.
- 임현규, 「공자의 『시경』 재구성과 詩論 : 『논어』를 중심으로」, 『哲學研究 : 대한 철학회논문집』 제137집, 대한철학회, 2016.
- _____, 「『논어』의 시(詩)에 대한 주자의 해석과 다산의 비평」, 『한국철학논집』 제49집, 한국철학사연구회, 2016.
- 陳禮淑, 「陽村 權近의 『詩淺見錄』 研究」, 공주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_____, 「孔子的 詩經觀과 그 後代의 反響 : 특히 주자와 그 後學들을 중심으로」, 『漢文學論集』 제39집, 槿域漢文學會, 2014.
- _____, 「『大學』의 引用 詩 研究 : 集註와 小註를 중심으로」, 『한문고전연구』 제31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15.
- 차민경, 「孔子의 人性教育思想 研究 : 四書에 인용된 『詩經』 詩를 中心으로」,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崔錫起, 「星湖 李翼의 詩經學」,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Abstract

*A Poetic Edification Theory-Based Understanding of Quotation Poems in Analects of Confucius – With a focus on Confucius' viewpoint of study and Wenzhi lun / Jin Ye-suk**

There are total eight citation poems in Analects of Confucius. Of them, four were directly quoted by Confucius; two were quoted from his conversations with his pupils regarding his education for his students with poems; and the remaining two were quoted from Cengzi at his deathbed and a hermit, respectively.

This study set out to examine the poems and lost poems of Book of Odes quoted in Analects of Confucius,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Confucius' poetic edification theory connoted in them through the situations and conversational content of poetic quotations, and make a concrete inquiry into them.

However, it's too voluminous to examine these total eight citation poems because not only the reason of quotation and character, but also poetic edification are respectively different from one another, also some poems were brought to a doubt of mispagination. With these reasons, in order to make my point clear I'd like to limit to only three poems which contain Confucius' viewpoints of study and Wenzhi lun.

Confucius' viewpoints of study and poetic quotations have a strong connotation of his poetic edification, which emphasizes ongoing human growth or his lesson that one should not be satisfied or settle down with his or her achievements while recognizing the academic achievements of Zilu and Zigong in the aspects of academic progress and character growth.

* Instructor, Kongju National University / jinyesuk@naver.com

The study then examined Confucius' Wenzhi lun and poetic quotations and found that he established a basic perspective for Wenzhi by highlighting its fundamental aspects including the recognition of Xianhou lun of loyal subjects and manners after Huishihousu and further proposed an ideal human character of Wenzhi binbin.

The Analects of Confucius naturally develops his poetic edification theory according to the situations of poetic quotation and the phase of his disciples' academic achievements. Confuciu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poems in advancement of learning. The aim and feature of his lesson was to lead his disciples to desirable human characters by devoting themselves to studying. Therefore, he enthusiastically conjugated the poems for teaching his disciples.

【Key words】 poetic quotation, viewpoint of study, poetic edification, Wenzhi lun, Huishihousu, loyal subject, Wenzhi binbin

투고일 : 11월 23일, 심사완료일 : 12월 19일, 게재확정일 : 12월 19일